

---

# 2008~2009 F/W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 Make-up Trends in 2008~2009 F/W Fashion Collections

---

김미현\*, 이유나\*\*

동명대학교 뷰티케어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

Mi-Hyun Kim(camellia@tu.ac.kr)\*, You-Na Lee(ana0370@hanmail.net)\*\*

---

### 요약

오늘날 사회의 제반현상들은 각 분야별로 각각의 트렌드가 있으나 복식의 변화와 관련된 패션 트렌드가 모든 트렌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패션 컬렉션은 패션 트렌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은 세계 4대 컬렉션으로 불리며 최신 유행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해주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은 의상과 더불어 메이크업과 헤어, 액세서리 등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보여준다. 패션 컬렉션에서 연출되는 메이크업은 디자인이나 색채뿐만 아닌 발상 자체에서부터 다양한 이미지가 시도되는 자리로 이를 중심으로 매 시즌의 새로운 메이크업 트렌드가 완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2009 F/W 패션 컬렉션의 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하고, 분석된 메이크업 경향이 각 화장품 브랜드의 새로운 트렌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중심어 : | 메이크업 | 트렌드 | 패션컬렉션 |

### Abstract

Today, every social phenomenon has there own trend. However, the lead of all trend is taken by fashion trend connected with the change of clothes. Fashion collection shows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trends, and fashion collections in Paris, Milano, New York, and London, known as the world's top four collections, are creating latest trends. Collections of fashion designers, who deliver these trends in a quickest way, show all elements ranging from fashion to make-up, hair, and accessories. New make-up trends of every season are introduced in fashion collection, since a fashion collection is a venue where not only various designs or colors, but also diverse image concepts are experimen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make-up trend found in the world top four fashion collections and get into the influence on new trend of cosmetic brands.

■ keyword : | Make-up | Trend | Fashion Collections |

---

##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는 패션과 뷰티 관련 산업들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뎠던 시절의 정형화된 모습에서 탈피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여성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트렌드를 형성하

---

접수번호 : #080826-001

접수일자 : 2008년 08월 26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08일

교신저자 : 김미현, e-mail : camellia@tu.ac.kr

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 자신의 스타일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면서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미의 가치가 자신을 대변하는 중요한 전달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뷰티분야에서 시작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메이크업은 특히 패션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비중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의 가장 실험적인 정신이 표현되고 트렌드로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 시즌마다 접할 수 있는 패션쇼에 나타나는 메이크업이다.

오늘날 사회의 제반현상들은 각 분야별로 각각의 트렌드가 있으나 복식의 변화와 관련된 트렌드인 패션 트렌드가 모든 트렌드에 앞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1]. 패션이 생활전반의 반영인 만큼 패션 트렌드는 국내외의 사회정세는 물론 인간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용해되어 인간 생활을 주도해 나가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는 패션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2]. 패션 컬렉션은 패션 트렌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은 세계 4대 컬렉션으로 불리며 최신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해주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은 패션뿐만 아니라 메이크업과 헤어, 액세서리 등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보여준다. 패션 컬렉션에서 보이는 메이크업은 디자인과 색채를 포함하여 발상 자체에서부터 다양한 이미지가 시도되는 자리로 이를 중심으로 매 시즌의 새로운 메이크업 트렌드가 완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2009 FW 패션 컬렉션의 메이크업 경향과 표현방법을 분석하고, 그 결과 메이크업 경향이 각 화장품 브랜드의 새로운 트렌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8~2009년도 F/W시즌으로 한정하였으며 파리, 밀라노, 뉴욕의 세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 인터넷 사이트인 www.style.com의 컬렉션 이미지 사진 312장과 와 패션잡지 등에서 패션쇼의 이미지 사진 188장을 추출하여, 메이크업 이미지가 부각된 얼굴을 중심으로 사진을 컬렉션 별로 각각 100장씩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사진 자료는 이미지 별로 분류하

여 2008~2009년 F/W시즌에 메이크업의 경향을 표현방법, 텍스처, 컬러 등의 특징적 이미지별로 구분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패션 메이크업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의 패션은 현실에서 문제의식과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시대적 거울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는 물론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까지 급속히 변화하는 대혼란의 세계 속에서 패션 또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3] 되면서 패션 트렌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패션 트렌드는 사회, 문화적 환경 전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반영하며 색채, 디자인,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메이크업은 패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매개체로서, 인간의 미적 가치관과 태도를 포함한 의지와 의식이 표되어 나타나는 외적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4].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방법이며, 나아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5].

메이크업은 페인팅, 토일렛, 드레싱 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아쥬 등으로 표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화장으로 번역된다[6]. 화장을 하는 얼굴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송·수신이 이뤄지는 중요한 부위로서[7] 화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변신하는 것과 두 번째는 치장으로서 원래의 부분을 고치는 행위를 의미한다[8]. 치장으로서의 메이크업이 유행에 가장 실험적인 정신을 엿볼 수 매 시즌마다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쇼에 나타나는 메이크업이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양상은 무제한적인 미의 수용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식은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 미의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표출시키는 대표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패션의 흐름이 토털 패션지행으로 부각됨에 따라 메이크업은 패션을 표현하는데 더욱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메이크업과 패션의 조하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9]. 과거의 뷰티 메이크업이 패션쇼의 부수적인 요소라는 틀을 깨고 아트적인 요소와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패션쇼에서도 그 비중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의상의 컨셉과 테마, 디자이너의 의도를 중심으로 색과 선을 결정하여 주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상에서 화려하고 다양한 장식적 용소가 많기 때문에 토털 패션 경향에 맞춰 연출되며 메이크업 패턴이나 칼라가 매 시즌 민감하게 제시된다[10].

## 2. 패션 컬렉션의 정의와 구성요소

패션 컬렉션이란 디자이너나 의류 회사가 특정 시즌을 겨냥해 만든 스타일과 디자인을 바이어들과 기자들에게 선보이는 일종의 '신작 발표회'로 그 유형에 따라 크게 **오프꾸뛰르(haute-couture)**와 **프레타포르테(pret-a-porte)**로 나뉜다[11]. 오프꾸뛰르란 개별적인 맞춤방식으로 주문, 생산하는 최고급으로 만들어진 옷을 뜻하며 프레타 포르테는 전년도에 오프꾸뛰르에서 발표된 것을 기성복 느낌으로 고쳐서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도록 대량생산되는 기성복을 뜻한다. 패션쇼(fashion show)와 패션 컬렉션(fashion collection)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패션쇼는 패션 컬렉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패션 컬렉션을 파리의 의상 조합 위원회에 소속된 개성과 창의력이 탁월한 파리의 오프꾸뛰르 패션디자이너들이 연중 시즌을 앞두고 다음해의 패션을 제안하는 패션 소개 형식이라 밝히고 있으며, 패션쇼는 이미 패션 트렌드로 부상되고 있거나 일반화 되고 대중화의 길로 들어선 패션을 재구성, 재창조하여 소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12].

표 1. 세계 4대 컬렉션 현황 (15)

구분	파리 컬렉션	밀라노 컬렉션	뉴욕 컬렉션	런던 컬렉션
개최 일시	3,4월/10월	3,4월/10월	2,3월/10월	2,3월/10월
주최	Federation Française de la Couture Du Prêt-à-Porter Des Createurs De La Mode (프랑스 패션 연합회)	Camera Nazionale Dell'Alta Moda Italiana (이탈리아 국립패션조합)	7th on Sixth NewYork Fashion Council (뉴욕패션협회)	British Fashion Council (영국 패션협회)
후원	라니니	통산성, 밀라노시	Mercedes-Benz 뉴욕시, 패션, 영화 등 대기업	통산성, 로이드 은행, 비탈 사순 등 민간기업
장소	카루셀 드 르부르 박물관 및 파리 전역	밀라노 외곽의 피에라 컨벤션 센터와 밀라노 전역	브라이어트 파크 내 가설 텐트 및 뉴욕 전역	자연사 박물관 앞 가설텐트 및 런던 전역
활동 디자이너	샤넬, 크리스찬 디올, 루이비통, 에르메스, 입생로랑, 장 폴 고티에 등	구치, 아이스버그, 프라다, 미우미우, 조르지오 아르마니, 돌체앤가바나 등	랄프 로렌, 켈빈 클라인, 마크 제이콥스, 마이클 코어스 등	알렉산더 맥퀸, 폴 스미스, 마리안 페조스키 등
컬렉션 특성	창의성, 홍보지향적, 개방적	창의성, 실용성, 패쇄성	실용성, 유통지향성, 연예광고산업과의 연계성	실험성, 극단성, 신인 중심, 캐주얼 우세

일반적인 패션 컬렉션의 구성요소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출, 공간, 조명과 배경 음악 및 음향효과, 모델 및 헤어·메이크업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패션 컬렉션에는 반드시 주제와 제목이 있어야 하는데, 관객들에게 컬렉션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기획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컬렉션의 주제는 그 시즌의 트렌드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표적 관객이나 선정된 의상으로부터 발전되며, 일관성을 보여 주기 위해 퍼블리시티나 의상 등 다른 기획 요소에도 사용된다[13]. 유행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패션 컬렉션들은 전 세계의 몇 개의 도시, 즉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도쿄 등지에서 규칙적으로 개최된다. 패션 하우스와 디자이너, 기성복 산업체에서는 매년 봄·여름·가을·겨울 시즌에 컬렉션을 발표하는데 오프꾸뛰르 패션 컬렉션은 시즌의 바로 앞에 임박 하여 열리고, 기성복 의류산업의 경우에는 시즌의 6개월 앞서 개최된다. 이때

에 세계의 디자이너, 제조자, 판매상, 그리고 패션기자들과 같은 패션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패션 아이디어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모여들며, 관계자들은 패션 동향을 분석한다. 이때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의 유사성 때문에 보통 몇 가지 컬렉션이 유사한 방향으로 흐른다[14]. 세계 4대 컬렉션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 한 것은 [표 1]과 같다.

### 3. 2008~2009 F/W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경향

이번 트렌드에서 주목 되는 점은 남성과 여성 패션이 상반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여성 패션은 몸매를 강조하던 'S라인'에서 벗어나 풍성하고 자유로운 보헤미안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산꼭대기처럼 뾰족한 피크트 라벨과 상체에 타이트하게 피트 되는 슈트로 라인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시즌 해외 여성복 컬렉션은 패션의 실용성과 현실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또한 컬러는 그레이이다. 칙칙한 느낌의 그레이 대신, 밝기를 달리해 은빛 느낌의 밝은 그레이부터 블랙에 가까운 다크 그레이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봄 여름 시즌에 비해 한 두 단계 톤 다운된 더 깊고 진한 느낌의 원색의 영향력도 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옐로우와 퍼플의 경우는 많은 브랜드에서 시즌 컬러로 선보이고 있으며, 진한 레드와 오렌지, 카키에 가까운 짙은 그린 컬러도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화이트의 모노톤도 여전히 각광받고 있다. 블랙을 중심으로 한 모노크롬 코디네이션과 따뜻한 느낌의 가을 컬러 그리고 여기에 임페리얼 블루, 로열 퍼플 등의 귀족적인 컬러 등이 사용됐다. 여성의류에서 이번 시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보헤미안으로 다양한 친을 덧댄 패치워크, 모피 트리밍, 프린지 장식 등이 가미되어 더욱 화려해진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체크 프린트도 인기를 얻고 있다. 재킷도 허리라인을 강조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디자인이다. 이번 2008~2009 F/W 컬렉션을 통해 디자이너들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였다. 블랙이나 화이트 위주의 컬러와 우아한 볼륨, 인체의 비율을 재정의 하는 고난이도 재단의 원피스, 그리고 특히나 많이 선보였던 정장들은 60년대와 80년대를 오가고 있

었다. 90년대의 미니멀리즘과 드라마틱하게 포장된 70년대적인 경향도 지난여름에 이어 선보였다. 파리 컬렉션 역시 독창적인 컨셉과 크리에이티비티를 강조하기 보다는 익숙한 영역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또한 클래식한 꾸뛰르 테일러링은 퓨처리스틱한 터치와 만나 엄격하면서도 귀족적인 품위를 지닌 모던한 레이디 룩으로 재탄생 됐다. 샤넬이나 입생로망 등이 몇 십 년 전 브랜드 초창기 시절을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대거 선보인 가운데 프라다나 블루마린은 레오파드 패턴과 속이 비치는 레이스 시스루룩 등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극대화하고 있다. 패턴면에서는 체크의 급부상이 눈에 띈다. 특히 이번 시즌의 체크는 닥스나 버버리처럼 각 브랜드 고유의 체크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뿐 아니라 D&G나 비비안 웨스트우드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의 캐주얼에서도 많이 선보이고 있으며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다양한 체크와 강렬한 색상을 필두로 하여 클래식하면서도 웨어러블한 의상들을 선보였다. 스틸라 매킨니(Stella McCartney)는 자연적 요소의 모티브로 다소 이국적인 문양들도 보였다. 따뜻한 컬러와 소재를 시각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의상들을 선보였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고목에 사는 소녀'라는 타이틀의 이번 컬렉션에서 인도에서 받은 영감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우아한 컬러를 사용한 도나카란(Donna Karan)은 유연하고 리드미컬한 드레이프가 돋보이는 드레스들이 주를 이루어 선보였고 끌로에(Cloé)는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플라워 프린트를 사용하여 페미닌함을 강조하였다.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는 정교한 테일러링이 돋보였고 이번 컬렉션은 세련된 스커트와 팬츠들이 많이 나타났다. 메이크업 뿐 아니라 의상에도 자신들의 의견을 담아 나타난 이번 빅터&롤프(Viktor & Rolf)의 컬렉션은 클래식한 스타일에 대한 향의, 패스트 패션에 대한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석 디자이너 니콜라스 게스키에르에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컬렉션의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클래식하면서도 미래적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스타일을 보여 주었다. 특히 중국의 풍경을 핸드 페인팅한 드레스를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를 공유하는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화려한 컬

리를 앞세운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의 컬렉션은 다양한 소재의 사용과 드레핑의 조화로 '바로크 미니멀리즘'이라 지칭하였다.

### III. 2008~2009 F/W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

본 연구의 목적은 2008~2009 FW 패션 컬렉션의 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하여 그 경향이 각 화장품 브랜드에서 미친 영향과 표현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사진자료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을 표현방법, 텍스처, 컬러 등 특징으로 하는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내추럴 누드 메이크업

2008~2009 F/W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피부 표현은 그동안의 촉촉하고 윤기가 흐르는 듯한 피부나 도자기처럼 매끈한 느낌보다는 잡티 없이 맑은 피부 톤을 강조하였다. 지난 S/S 시즌에서의 실크처럼 매끄럽고 빛나고 잘 다듬어진 피부표현에서 랄프 로렌(Ralph Lauren)이나 DKNY의 쇼와 같이 소녀 같은 순수한 느낌의 피부로 새로운 내추럴한 누드 메이크업을 보여주었다.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쇼에서 아이 메이크업은 피부 톤과 유사한 색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색상을 사용하여 깔끔한 이미지로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특히, 파리 런어웨이의 모델들은 매트한 피부로 거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스킨 톤의 쉬머한 골드, 피치, 브라운 등의 아이세도로 미니멀하게 연출하였으며, 홍조를 띤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치크는 라이트한 핑크 톤과 피치 톤으로 살짝 물든 듯한 느낌을 주어 깨끗함을 표현하였다.

성숙하고 세련된 느낌의 립 메이크업은 누드 톤의 피부 표현에 포인트를 주어 색다른 이미지를 주었는데 근로에(Cloé)와 도나카란 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약간 글로시한 누드 톤과 섹시한 느낌의 버건디 계열이 주류

를 이루어 쉬크한 느낌을 주었다. 2007년의 F/W 컬렉션의 선명한 레드 립스틱을 립 라이너로 깨끗하게 표현한 반면 [그림 1]과 같이 2008년에는 깨물어 문 듯한 버건디 빛으로 순수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의 묘한 매력을 풍겨 성녀(聖女)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 2. 스모키 메이크업

매년 F/W시즌이 오면 어김없이 유행하는 메이크업이 바로 스모키 메이크업이다. 2008~2009 F/W시즌에도 여느 시즌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느낌의 스모키 메이크업이 선보였는데 [그림 2]와 같은 조르조아 아르마니(Giorgio Armani)의 쇼에서 보인 전형적인 스모키 테크닉 외에도 빅터&롤프(Viktor & Rolf)의 쇼에서와 같이 눈두덩에 붓 자국을 남기듯 한 그래픽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잉크가 번지듯 은은하게 눈매를 감싸기도 하고, 수채화처럼 얇게 표현하는 다양한 스모키 메이크업의 표현 방법이 나타났으며, [그림 3]과 같은 개성 있고 창의적인 메이크업 표현법은 4대 컬렉션 가운데서도 파리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그림 1. 내추럴 메이크업



그림 2. 스모키 메이크업

피부표현은 피부보다 한 톤 어두운 듯한 색상을 사용하여 쉬머한 브론징 느낌을 표현하거나 누드 톤의 깨끗하게 표현하여 다양한 텍스처의 느낌을 보였다. 아이세도의 색상은 블랙이나 그레이계열 또는 황갈색의 브라운 계열, 블루 계열을 사용하였으며, 립 컬러의 경우는 너무 과해보이지 않도록 누드 톤으로 마무리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빅터&롤프나 발렌시아가(Balenciaga) 등과 같이 그래픽적인 느낌의 스모키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누드 톤의 립보다는 레드나 와인 계열의 색상으로 립과 아이를 동시에 강조하여 글래머러스한 룩을 연출하였다.

Milan	Paris	Paris	Paris
			
Gucci	Viktor & Rolf	Christian Lacroix	Balenciaga

그림 3. 스모키 메이크업

### 3. Art&Color 메이크업

2008~2009 F/W 패션 컬렉션의 매력은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인데 디자이너의 작품세계에 따라 다양한 메이크업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패션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메이크업이 보여졌다. 특히 회화적 느낌이 강한 아트 메이크업이나 컬러풀한 색상의 사용을 볼 수 있다. 은은하게 물든 듯한 느낌으로 컬러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한 마르니(Marni)와 루이스 골딘(Louise Goldin)의 컬렉션 등에서 [그림 4]와 같이 예술적 느낌이 강한 표현을 볼 수 있다. 회화적인 파스텔 컬러나 흩뿌리거나 얼룩진 듯한 느낌의 다양한 텍스처는 더욱 풍부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London	Milan	Milan	New York
			
Louise Goldin	Romeo Gigli	Marni	A.F. Vandevorst

그림 4. 회화적 표현기법의 메이크업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an Westwood),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크리스찬 라크르와(Christian Lacroix)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의 이미지[그림 5-1]과 [그림 5-2]는 회화적인 이미지보다는 강렬하지만 깨끗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팝아트적인 강렬하고 비비드한 톤을 보여주었으며, 선과 면을 활용한 디자인적 요소들을 눈이나 입술에 적용하여 개성 강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를 메이크업에도 반영하였다.

Paris	Paris	Paris	Paris
			
Vivian Westwood	John Galliano	Christian Lacroix	Miumiu

그림 5-1. 비비드한 색감을 이용한 메이크업

New York	Paris	Paris	Paris
			
Proenza Schouler	Jean Paul Gaultier	Jose Castro	John Galliano

그림 5-2. 비비드한 색감을 이용한 메이크업

풍부한 색감과 다양한 예술적 기법이 사용된 2008~2009 F/W 컬렉션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메이크업 이미지도 선보여 예술적인 메시지를 보였다.

[그림 6]과 같이 빅터&롤프의 컬렉션에서는 마릴린 맨슨 스타일의 스모키 메이크업 외에도 패스트 패션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NO'라는 메시지를 얼굴에 담았다. 니나리찌(Nina Ricci)도 자연스러운 브라운계열의 아이채도와 립 컬러와 함께 눈 주위에 골드로 그래픽적인 포인트를 주었으며,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아프리칸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이나 카스텔 바작(J.C de Castelbajac)의 광대를 연상케 하는 연출들은 모두 파리 컬렉션에서 보였다. 이러한 트렌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에서 또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대표브랜드인 라네즈, 헤라를 비롯해 많은 메이크업 브랜드들이 올 가을 주력 상품으로 퍼플컬러의 아이샤도우를 출시하게 했다.

라네즈는 올 가을 음영 살린 얼굴, 퍼플 컬러의 눈, 베이지 빛 입술, 윤기 흐르는 피부에 고혹적인 아이메이크업을 내세운 '스노매직 컬렉션'을 선보이며 매직핑크, 매직오렌지, 매직퍼플로 구성된 투명하면서 반짝이는 보라 빛 눈매를 연출했으며 헤라에서는 회색빛 도시의 화려함에서 영감을 얻은 가을 메이크업 룩으로 퍼플 톤의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이 특징이다.

오휘가 제안하는 가을 메이크업은 다크 브라운으로 깊이 감을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전체적으로 깊이감 있고 풍부한 느낌의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에 오렌지 브라운 립글로스, 오렌지 블러서로 강렬함과 여성스러움을 조화롭게 표현한 것 같이 패션과 화장의 트렌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그래픽적 요소의 메이크업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컬렉션별로 대표적인 3가지의 메이크업 스타일과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디자이너의 의상 컨셉을 [표 2]로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류한 3가지의 메이크업 스타일과 각 컬렉션별 사용빈도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디자이너별 의상 컨셉 및 메이크업 스타일

컬렉션	디자이너	의상컨셉	메이크업 스타일
Paris	존갈리아노	오리엔탈 느낌의 신비로운 스타일	다양한 컬러와 그래픽적인 아이 메이크업
	빅터앤롤프	블랙, 그레이계열 매니쉬한 스타일	블랙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
	크리스찬 라크루와	미니멀한 바로크 스타일	비비드한 컬러의 아이 메이크업
New York	랄프로렌	체크를 강조한 클래식 스타일	심플하고 깨끗한 피부표현과 누드 립
	도나카란	리듬감의 드레시한 스타일	맑은 피부와 섹시한 레드 립 강조
	A.F 반데버스트	편안한 니트 스타일	흘뻐리기법의 아트 메이크업
London	루이스골딘	기하학 문양의 사용	오렌지 아이메이크업으로 눈 강조
	크리스토퍼 케인	다채로운 장식요소 사용	라이트한 오렌지 내추럴 메이크업
	에르뎀	추상적인 패브릭의 여성스러운 스타일	건강한 혈색의 누드 메이크업
Milan	구찌	티프하고 에스닉한 실루엣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
	마르니	가벼운 소재와 다양한 컬러	소프트톤의 아이 메이크업, 버건디 립
	베르사체	아름다운 곡선의 페미닌 스타일	골드 브라운톤의 스모키 메이크업
	D&G	클래식과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심플한 내추럴 누드 메이크업

####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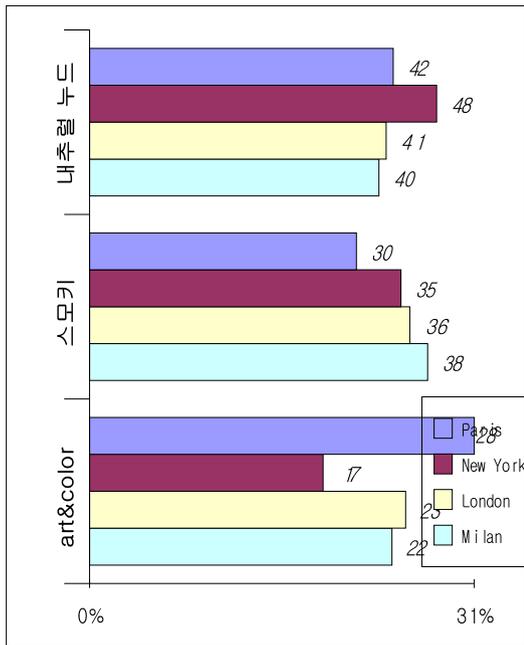
##### 1. 2008~2009 F/W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

이상 [표 2]와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2009년 F/W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교하면서 깨끗한 피부 표현으로 맑고 순수한 느낌을 주는 자연스러운 피부를 강조하였다. 내추럴하고 소녀와 같은 스킨 텍스 처에 깨물어 문 듯한 버건디 계열의 립 포인트로 섹시하

먼서도 깔끔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둘째, 스모키 메이크업은 세련되고 성숙한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쉬머하고 내추럴한 피부 표현과 와인 계열의 립 메이크업으로 섹시한 느낌의 메이크업이 강세를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회화적이고 그래픽한 요소들의 메이크업은 다양한 예술적 기법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른 사용빈도(%)



## 2. 화장품 브랜드의 트렌드 룩에 나타난 2008~

### 2009 F/W 패션 메이크업 경향

이와 같이 2008~2009 F/W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과거의 범주 안에서 혼합되지 않도록 독창성을 띤 미래지향적인 메이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술적 기법의 사용으로 아트적인 느낌이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다양한 컬러의 사용으로 2008~2009 F/W 메이크업 컬러감이 풍부해지고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면서 쉬어하고 맑은 느낌의 색상이 유행할 것으로 예측된

다. 또한 과거 두껍고 짙은 메이크업에서 자연스럽게 깨끗한 메이크업의 경향으로 인해 순수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 표현이 중요시 되고 있다. 때문에 2008년 가을, 겨울은 이러한 피부표현에 버건디 계열의 립으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메이크업 트렌드가 형성되며, 매년 유행하는 스모키 메이크업도 내추럴한 피부표현에 알맞은 블랙&그레이 계열, 골드&브라운계열의 라이트한 스모키 아이새도나 클래머러스한 립 컬러로 쉬크한 메이크업 이미지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화장품 브랜드에서 엿 볼 수 있다.



그림 7. 화장품 브랜드에 나타난 내추럴 누드 메이크업



그림 8. 화장품 브랜드에 나타난 스모키 메이크업과 Art&color 메이크업

4대 패션 컬렉션에서 보인 메이크업의 경향은 국내 외의 화장품 브랜드에서 발표하는 시즌별 메이크업 트렌드를 형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08년도 가을·겨울 화장품 브랜드에서 선보인 메이크업 룩은 [그림 7][그림 8]에서와 같이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내추럴 누드, 스모키, 아트앤컬러 메이크업의 경향을 표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골드와 브라운계열의 라이트한 스모키 메이크업과 누드 또는 버건디톤의 립 메이크업이 대세를 이루었다. 따라서 패션 컬렉션의 메이크업 경향은 화장품 브랜드의 메이크업

트렌드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의 메이크업 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패션 컬렉션에서 보인 메이크업과 새로운 방향의 아트적인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좀 더 실용적으로 적용시키는 디자인 연구가 요망된다.

### 참고 문헌

- [1] 김수윤, "1990년대 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2001.
- [2] 안병기, 패션트렌드 정보기획론, 학문사, p.133, 2000.
- [3] 윤수정, "패션트렌드의 다중화 복합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38, 2002.
- [4] 이승주,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2005.
- [5] 오정희,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2005.
- [6] 김미정, "패션트렌드에 따른 토탈 메이크업 경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2004.
- [7] 다이보 이쿠오, 의복과 화장의 사회심리학, 동서교류, p.78, 2005.
- [8] 다이보 이쿠오, op.cit., p.30.
- [9] 김미정, op.cit, p.1.
- [10] 오정희, op.cit., p.40.
- [11]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p.519, 1995.
- [12] 김종선, "현대 사회·예술 특성과 패션 컬렉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9, 2007.
- [13] Ibid, p.43.
- [14] 김수윤, op.cit, p.7.
- [15] 장안화, "현대 패션쇼의 대중문화적 특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2, 2002.

### 저자 소개

김 미 현(Mi-Hyun Kim)

정회원



- 1989년 2월 : 건국대학교 생활과 학대학(미술학사)
- 2008년 8월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2007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뷰티케어학과 교수

<관심분야> : 퍼스널 컬러, 이미지색채, 메이크업

이 유 나(You-Na Lee)

정회원



- 2008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미술학석사)
- 2008년 3월~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2008년 : 대구한의대학교 패션·시각디자인학부 외래교수

<관심분야> : 메이크업, 미용색채, 패션